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농업인단체와 환경정화 나서

천용남 기자 cyn6005@egnews.co.kr

등록 2024.12.02 16:59:03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2일 김포시, 농업인, 주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 '수질환경보전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태원 김포지사장을 비롯해 직원 및 김포시와 계양구, 농업인단체, 언론인 등으로 이루어진 수질환경보전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관리 농업용수 수질 현황 및 수질관리 실적보고 등에 이어 수질개선을 위한 농업인단체, 지역주민의 수질관리 관련 개선요청사항 및 지자체의 수질환경보전회 구성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

이어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위치한 간척용수지선에서 환경정화행사를 갖고 공사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업인단체, 지역주민과 함께 수질개선에 힘을 모았다.

김태원 지사장은 "수질보전은 공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참여기관 및 농업인, 지역주민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사에서도 수질환경보전회 규모를 확대하여 농업용수의 수질관리 및 청정 농업용수 공급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